



2015년 7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참석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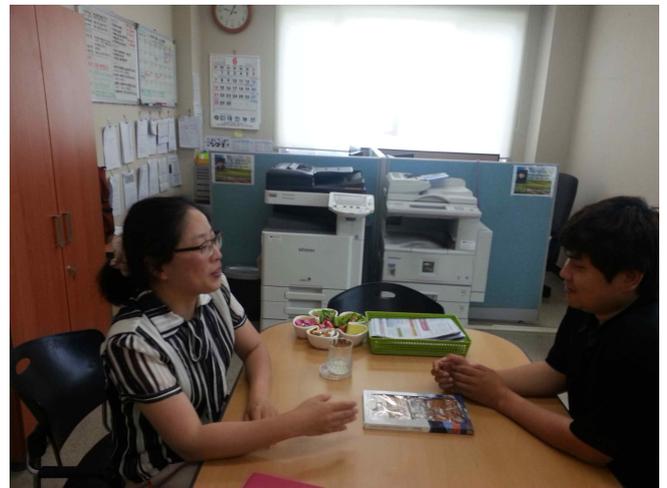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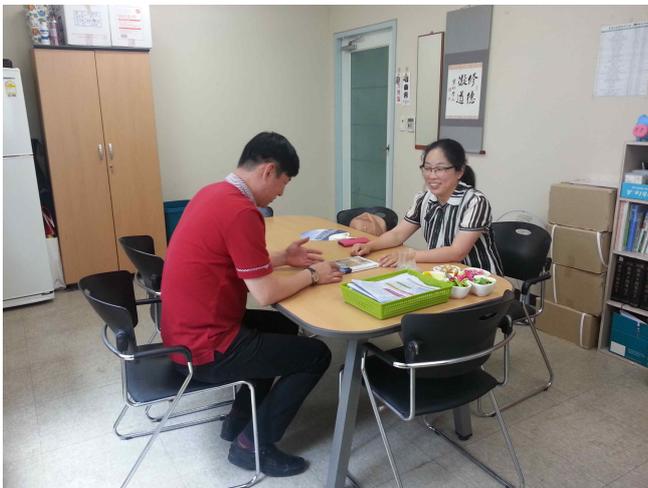
: 지난 6월 22일에 홍성덕 부원장님과 이동학 실장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관계자들이 모여 구 도청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후 상관리조트로 이동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는 회의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창조위원회의 위원이신 전주시장,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많은 의견 교류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향후 일련의 활동들이 모범적인 전라감영 복원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 임미연 전임실장 방문 (6.23)

: 지난 6월 23일에 임미연 전임실장이 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임미연 전임실장은 연구원 이전 소식을 뉴스레터로만 접하였기에, 행정실장의 상세한 연구원 내부 공간설명이 있었습니다. 1년여 간의 스페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임미연 전임실장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며, 앞으로 연구원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 2015년 6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6.24)

- 날짜 : 6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 / 장소 : 한지산업관 202호
- 참석 : 홍성덕 운영위원장, 김건우, 한명수, 이미경, 최우영, 하태진 운영위원
- 안건 : 1호 - 2015년 하반기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 사업계획 건
2호 - 2015년 회원의 날 행사 진행 건
- 결과 : 1호 -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지출 승인
2호 - 첨부자료 계획 승인, 차기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점검
- 기타 : 회원 전수조사(연간 캘린더), 뉴스레터 발송자 추가(회원 이외 추가)
- 차기 운영위원회의 : 8월 7일(금) 18시



○ **7월 발간 연구원 회지 제호 공모안내**

: 연구원에서 7월에 발간 예정인 연구원 회지의 제호를 공모합니다. 연구원의 오늘과 내일에 맞는 제호 응모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제호를 제출하신 분께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마감날짜 : 7월 10일 / 접수 : 문자 또는 이메일

○ **연구원 일정 잠정적 연기 - 추후 재편성 예정**

: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던 연구원 행사를 무기 연기합니다. 차후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하루 속히 진정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빌겠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2015년]

○ 06월 29일(월) : 주간회의 (11시)

○ 07월 01일(수) : 동북아역사재단 재단심사 (각 기관별 별도 연락)

■ 역사속의 오늘

○ 조선의 로빈슨 크루소 한국인으로 귀국하다 - 1955. 7. 5

: 십년이란 긴 세월을 남양군도 섬의 산속 암굴 속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여온 사나이... 달팽이 등을 잡아먹으며 십년동안 목숨을 이어온 사나이... 그동안 옷이라고는 입은 일이 없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조국의 광복도 알지 못하고... (동아일보 1955년 07월 07일 기사 “韓國의 巖窟王” 조병기 씨의 半生” 발췌)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서 나고 자란 토종 조선인 조병기,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7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징용에 끌려갔다가 남양군도에 파견되는 노동자로 지원했다. 그것이 1944년의 일이었는데 그는 지독하게 운이 없었다. 요즘에 관광지로 유명한 팔라우 군도 중의 하나인 펠레류 섬에 그가 도착했던 것은 미군이 그 섬을 총공격하기 몇 달 전이었던 것이다. 그곳에는 25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와 약 2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다.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미국의 상륙으로 일본군은 전멸하고, 3명의 한국인이 살아남았으나 "미국에 사로잡히면 귀와 코를 자르고 혀를 뽑아 죽인다." 는 평소 일본군의 선전에 속아 세 사람은 산속 밀림지대로 숨어들었다. 섬에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고 원주민도 2,000명이나 살고 있었다. 함께 숲 속으로 도망친 조선인 노동자 1명은 생포되고, 1명은 미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그는 홀로 살아남아 달팽이와 무 등으로 연명하며 토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유리병 속에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며 날짜를 어림했으며 우연히 주운 미국 성냥으로 지핀 불씨를 11년 동안 꺼뜨리지 않는 것으로 삶의 엄숙함을 증언했다.

십여년의 세월이 흐른 1955년 5월 7일, 그는 원주민 농장에서 고추를 따 먹다가 붙잡혔다. 다행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원주민의 도움으로 미군 손에 넘겨져 광을 거쳐 일본으로 이송됐다. 두달 여만에 한국에 도착한 뒤 그가 뱉은 一聲은 "아이와 아내가 보고 싶다" 였다.

그가 일본으로부터 징용노임으로 받은 돈은 5만 589원이었다. (당시 쌀 35가마 내외의 금액으로 현재 화폐가치로 계산할 경우 약 560여만원이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고)

동일 조건으로 일본인에게 지급되었던 "피동원자원조법"과 "은급법"에 따른 급료는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 그가 고국을 떠날 때 생후 수개월 밖에 안 된 장남은 어느덧 열다섯 살로 자라 백부와 살고 있었고, 해방 후 전달된 전사통지서로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내는 이미 재가하여 아이를 낳은 뒤였다. 당시 성북고교(현 홍익대사대부고) 이희석 교장의 도움으로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갔다는 소식 이후 그의 흔적은 더해지지 않은 채 기록을 멈춘다.

○ 수은중독으로 열다섯에 쓰러진 소년 송면이의 죽음 - 1988. 07. 02

: 중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해 12월 쪼들리는 가정형편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학교에 다니겠노라며 상경했던 문군, 온도계 제조업체인 협성계공에 일자리를 얻고... 두달도 안 돼 병명도 모른 채 불면증, 두통, 팔다리 떨림 증세로 시달리다 '수은중독 및 유기제 중독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것이 지난 3월 14일... 산재요양신청에 회사측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뜯어내려고 의사와 싸고 하는 허튼수작"이라는 등 온갖 협박과 회유...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도 회사측을 두둔하다 직업병 '수은중독'이 여론화되자 요양신청 70여 일만인 6월 20일에야 산재요양승인서를 발급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경향신문 1988년 07월 04일 기사 "뒀 살고 싶어" 발췌)

87년 12월 영등포 소재 협성계공에 입사한 소년은 불과 2개월 만에 수은중독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6개월의 투병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충남 서산에서 상경한 소년은 야간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회사에 들어와 하루 11시간씩 압력계 커버의 신나 세척, 페인트칠, 온도계의 수은주입 작업을 했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새어나와 작업장의 공기는 수은증기로 온통 뿌옇게 뒤덮였고, 바닥에는 액체가 된 수은이 널려 있었다. 작업 중에 불면증, 두통,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신발작으로 악화되었다. 이후 4군데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서울대 병원에서 수은 및 유기용제 중독 진단을 받았다.

티없이 건강하던 열 다섯 된 막내 아들이 귀신도 곡할 병에 걸리자 가족들은 목숨보다 귀했던 눈을 팔아 굿판까지 벌이고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4남 2녀 중 막내였던 소년은 공부하고 싶었으나 공부할 수 없었고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그럴 자유조차 잃은 채 가느다란 숨을 놓게 되었다.

"살고 싶어. 병 다 나으면 무서운 서울 떠나 농사지으며 엄마랑 살자." 란 말을 큰형에게 남기고 이승의 소풍을 마감했다. 막내를 가슴에 묻을 수 없었던 소년의 아버지는 다음해 "우리 송면이 학교가야지..."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뜬다.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친구들처럼 나도 공부하고 싶다.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 자식 공부 못시키는 부모님 맘이 오죽할까. 서울에는 고등학교 공부시켜 주는 공장이 있다는데.... " (1987년 문송면의 일기 중)